

'모두를 위한 미술,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

전주시, 28일 남부시장 문화공관장 작당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포럼 개최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들어설 시립미술관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남부시장 인근 문화공관장 작당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을 주제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시립미술관 건립 준비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두 번째 공개토론회 자리로, 지난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 총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뮤지엄의 정의를 배경으로 '대중에게 개방돼 접근하기 쉽고 포용적이며 다양성과 지속가능

성을 촉진하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박윤조 주한영국문화원 아트디렉터와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극장운영부장, 구정연 리움미술관 교육연구실장이 각각 '고령화 시대,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해외 시니어 교육 사례'와 '포용적 감수성의 시대, 장애인 문화예술시설과 사례', '미술관의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열어주는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백령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 3인과 김성희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나유미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

해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을 주제로 지정토론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모두를 위한 미술, 모두에게 열린 미술관'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미술관 건축물의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립미술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통적 관광기업 도약 지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7월 10일까지 5개 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7월 10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적 관광기업 도약 지원(Level-up 프로젝트) 참여 기업 총 5개 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evel-up 프로젝트는 지역 기반 관광기업의 관광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1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전북자치도 지역 관광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이들의 사업확장과 신시장 진출을 지원해 지역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한 1항부터 7항까지의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다.

선정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사업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사업의 지속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5개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받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존사업 확장 지원 및 전북 관광관련 신규 사업 추진 등의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jonbuk.tourbiz.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3)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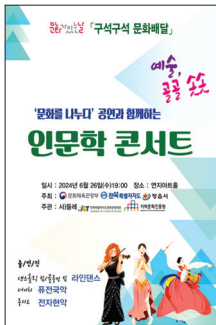
/장은성 기자

둘레, 26일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연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둘레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라인댄스 부문에는 댄스 홀리딩과 블루밍이 참여하고, 퓨전국악 부문에는 더이치가, 전자현악 부문에는 루시드가 출연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린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제1회 과제전' 개최

올해 전북지역 최초 4년제 대학 신설... 웹툰·만화·일러스트 작품 전시·시상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학과장 조운숙)는 지난 21일 진리관 C-energy Lab에서 '제1회 과제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지역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신설된 웹툰만화콘텐츠학과는 첫 학기를 맞아 1학년 신입생들이 주축이 됐다.

이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제작한 웹툰, 만화, 일러스트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시상하는 자리로, 신입생들이 한 학기 만에 이론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다.

이번 전시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 내 과제 제출에 머물지 않고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작품을 평가받는 대외 전시를 경험함으로써 상호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조운숙 학과장은 "첫 회 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외부에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제를 단순히 학습의 일환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외부 평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첫 신입생 모집에서 10:1의 경쟁률을 보였던 웹툰만화콘텐츠학과는 오는 9월 두 번째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

전북대 도서관, 지역민 대상 책 쓰기 프로젝트 운영

전북대학교 도서관(도서관장 송기춘)은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책을 쓰고 작가가 될 수 있는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책쓰기 프로젝트는 오는 7월 4일부터 주 1회씩 7주 간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신춘문에 등단 작가의 글쓰기 지도와 1대 1 피드백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작성된 원고는 각 팀별로 한 권의 책으로 출간돼 참가자들에게 작가가 되는 특별

한 경험을 선사한다. 완성된 도서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글쓰기 숙련도에 따라 2개 분반으로 나눠 총 20명 모집할 계획으로, 오는 24~28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기춘 도서관장은 "이번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고 대학 인권의 벽을 허물며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가 최근 지역 문화재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재 긴급 보수

최근 부안 지진 이후 국가유산 긴급점검·보호조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가 최근 지역 문화재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발생한 부안군 일원을 대상으로 내소사와 개암사 등을 비롯해 관리대상 국가유산을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내소사 대웅전에서 변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고, 또 개암사에서는 담장이 균열된 것을 확인했다. 구암리 지석묘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기와가 탈락한 건 등 국가유산과 지방유산(시도지정 문화유산)의 지진피해를 확인했다.

이에 센터에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

유산에 대한 임시조치를 즉시 실시해 1차적으로 탐방객이 많고 주거지역에 인접한 국가유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소사 석축 담장과 구암리 지석묘군의 담장 기와를 긴급 보수했다.

남해경 센터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이후 여진에 따른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서부문화유산돌봄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6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383개소 국가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